

보 도 참 고 자 료

배 포 일	2019. 8. 30. / (총 10매)	담당부서	감염병총괄과
과 장	이 동 한	전 화	043-719-7120
담 당 자	이 윤 희		043-719-7111

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

◇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 당부
- 어패류 익혀먹기, 바닷물 접촉주의(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),
어패류 5℃ 이하 저온보관 및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.

* 2019년 6월 1명 → 7월 2명 → 8월 15명

○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, 감염 시 급성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으로,

○ 매년 8월~9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.

* 최근 5년간 월별 평균 환자 신고수: 2월 0.2명, 4월 0.4명, 5월 0.2명, 6월 2.4명, 7월 5명, 8월 12.6명, 9월 19명, 10월 8.6명, 11월 0.6명, 12월 0.4명

○ 2019년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* 확인된 확진 환자 3명은 해당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, 간 질환, 알코올중독,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비브리오 패혈증 고위험군이였다.

* 2019년 사망 신고환자 7명 중 4명은 역학조사 중

<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>

간 질환자, 알코올중독자,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,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, 악성종양, 재생불량성 빈혈, 백혈병 환자, 장기이식환자, 면역결핍 환자

□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“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, 특히, 만성 간 질환자, 당뇨병,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<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>

-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.
-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.
-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.

- ◇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.
- ◇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.
*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동안 더 끓이고,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이상 더 요리해야 함
- ◇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.
- ◇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.
- ◇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.

<붙임> 1. 비브리오패혈증 개요

2. 발생통계
3. 질의응답
4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하기 포스터
5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카드뉴스

붙임 1

비브리오패혈증 개요

정의	□ 비브리오 패혈균(<i>Vibrio vulnificus</i>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
질병 분류	□ 법정감염병 : 제3군 □ 질병코드 : KCD-7 A 41.52
병원체	□ <i>Vibrio vulnificus</i> - <i>Vibrionaceae</i> 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막대균 - 3가지 생물형이 알려져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1형이 발견
병원소	□ 해수, 갯벌, 어패류, 사람은 주로 기회 감염됨
전파 경로	□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□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
잠복기	□ 12시간 ~ 72시간
증상	□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, 1/3은 저혈압이 동반 □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, 주로 하지에 발생 - 피부병변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
진단	□ 검체(혈액, 대변, 소변, 직장도말물, 구토물, 수포액, 피부병변, 조직)에서 <i>V. vulnificus</i> 분리 동정
치료	□ 병변절제 : 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 □ 항생제 치료 : 3세대 세팔로스포린, 플루오로퀴놀론,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로 즉각 치료
전염 기간	□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음
치사율	□ 50% 내외
관리	<환자 관리> □ 환자 격리는 불필요
	<접촉자 관리> □ 접촉자 관리 : 불필요 □ 환자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된 경우 접촉자 발생여부 관찰
예방	□ 일반적 예방 -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(특히, 고위험군 환자) -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, 바닷물에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

붙임 2

비브리오패혈증 신고현황

□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및 사망자 신고 현황

(단위 :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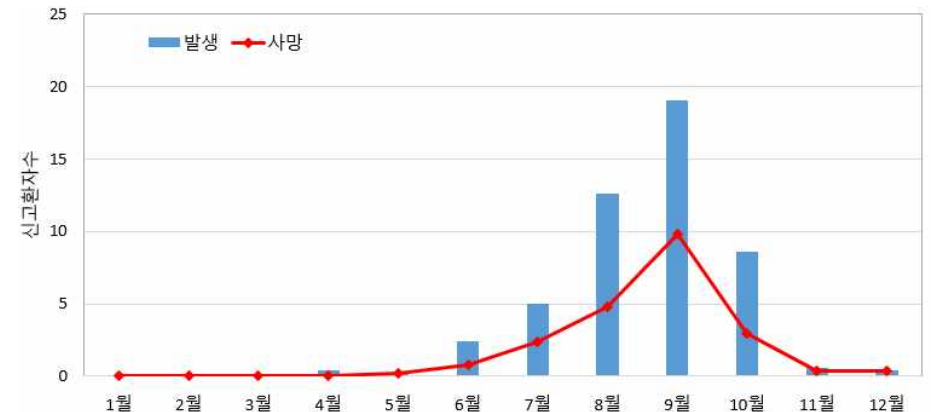
연도 \ 월	신고건수 (사망자수)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'19년'	18(7**)	0	0	0	0	0	1	2	15(7)				
'18년	47(20)	0	0	0	1	0	2	7(3)	16(8)	10(6)	11(3)	0	0
'17년	46(24)	0	0	0	1	0(1)	1(1)	2	13(8)	19(11)	9(3)	1	0
'16년	56(12)	0	1***	0	0	0	2	5(2)	20(4)	17(4)	9(2)	1	1
'15년	37(13)	0	0	0	0	0	5(1)	5(2)	4	17(7)	5	1(2)	0(1)
'14년	61(40)	0	0	0	0	1	2(2)	6(5)	10(4)	32(21)	9(7)	0	1(1)

* 2019년 자료는 잠정통계로 변동가능

** 사망 신고환자 역학조사 중

*** 해외유입

□ 최근 5년간('14~'18년) 월별 평균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및 사망 신고 현황



붙임 3

질의응답

1.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?

- 비브리오 패혈균(*Vibrio vulnificus*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.

2.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?

- 급성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.
-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, 병변의 모양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합니다.

3.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?

-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, 사람 간은 전파되지 않습니다.

4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,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해야 합니다. 특히, 고위험군(간질환자(만성 간염, 간경화, 간암)), 알코올 중독자, 면역저하 환자 등은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℃ 이하로 저온 저장 85℃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.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.

5. 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적절한 항생제 복용을 통해 치료하고,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병변절제를 통해서 치료합니다.

붙임 4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하기 포스터

비브리오패혈증
예 / 방 / 하 / 기

2017. 5. 1.



※ 특히, 고위험군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도록 합니다.
※ 간 질환자, 당뇨병, 동맥경화, 만성신장질환자, 항암제 복용 중인자, 임신중, 자선물량의 빈혈, 백혈병, 장기이식자, 면역결핍자

붙임 5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카드뉴스



비브리오패혈증이란?

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균(Vibrio vulnificus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바닷물 온도가 18℃ 이상 올라가는 5~6월 시작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주로 **오염된 어패류**를 생식하거나 **상처 난 피부**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될 위험이 있어요!



비브리오패혈증 증상

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구토, 복통,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발진과 부종 같은 피부병변이 생기고,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며 과사성 병변으로 진행됩니다

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법 1

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를 통해
균에 감염되기 때문에 어패류는 꼭 85℃ 이상 가열처리 후
드시는 것이 좋으며,
상처 난 피부와 바닷물의 접촉은 피해주세요

5/7



6/7